

관점 따라 다양한 해석 '금강경'에 빠지다

김호귀 연구교수 '금강경' 주석서 '금강선론' 펴내... 가장 오래된 주석서

<금강경>은 <반야심경>처럼 짧지도 <화엄경>처럼 길지도 않은 적절한 분량으로 읽기 쉬우면서 대승불교의 깊은 진수를 드러내고 있어 오랫동안 대중들에게 알려져 왔다. 중국의 구마라



김호귀 연구교수가 최근 번역해 펴낸 <금강선론> <금강삼매경론>.



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습(鳩摩羅什, 344-413)이 <금강경>을 최초로 한역(漢譯)한 이후 2-300년 사이에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가 중국에서만 900여 권이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금강경>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이 중에서도 <금강선론>은 <금강경>에 대해 아주 자세한 해석이 담긴 가장 오래된 주석서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강경>주석서 번역 및 <금강경>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온 김호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최근 <금강경> 주석서인 <금강선론(金剛仙論)>을 국내에서는 처음 번역해 펴냈다.

김 연구교수는 "〈금강경〉은 인도에서 무착(無著)과 천천(天親)에 의해 일찍이 주석서로 저술했다"며 <금강경>주석서와 <금강선론>에 대해 간략하게 들려줬다.

부처님 열반 후 4-5세기 무렵 <유가사지론> 등 티베트로부터 많은 설법을 들은 무착은 유가행파(瑜伽行派)를 창시했다. <금강경> 해석에 난해한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은 무착은 일광삼매(日光三昧)에 들어 도솔천에 올라가 티베트보살을 만나 <금강경>의 뜻을 물었다. 김 연구교수는 "티베트보살이 77개의 계승을 지어 <금강경>의 대의를 일러줬다. 무착은 이를 77개의 계승으로 요약해 동생인 천천에게 암송했다"며 "이를 받아 적은 천천은 해석을 달아 <천천론>이라고도 불리는 <금강반야론>을 저술했다"고 덧붙였다.

<금강선론>은 이러한 <금강경>의 경문, 무착의 계승, 천천의 해설에 천천의 제자이기도 했던 금강선논사의 종합적인 해설이 곁들여진 4종의 중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김 연구교수는 "이런 점에서 <금강선론>은 무착과 천천의 <금강경> 해석에 대한 충실한 계승이기도 하다"며 "때문에 이 책은 인도에서 출현하고 계승됐던 <금강경>에 대한 논서의 성격이 비교적 자세히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김호귀 연구교수가 동국대 선학과, 금강경학회의 강의 자료

와 연구논문을 위해 한역한 <금강경>주석서만해도 수권에 이른다. 그는 이번에 <금강선론>뿐 아니라 원호 스님의 <금강삼매경론>도 한역해 펴냈다. 이 외에도 그는 <계송으로 풀이한 금강경> <금강반야경소> <금강경찬술> <금강경주해> <금강경약소> 등 다양한 <금강경> 주석서들을 한역한 책을 펴냈다.

김 연구교수는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가 다양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경전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

이 있었지만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을 붙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도 있다"며 "〈금강경〉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위한 <금강경>주석서들은 고전으로 전해내려 오는 것들이니 한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냐은 기자 bohjung@buddhapia.com

금강경 주석서들

당나라 지엄(智嚴) 스님, <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
당나라 지엄사의 지엄 스님이 보리류지(菩提留支) 한역본에 의거해 그 형식과 내용에 해석을 가한 <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를 통해 <금강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풀었다.

지엄 스님이 <금강반야바라밀경약소>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 것은 실상반야·관조반야·문자반야(방편반야)의 본질에 대해서 체와 덕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나아가서 그 수행의 입장에서 3종반야의 체와 상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경문의 내용을 반야의 본질과 수행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나라 규기(竊基) 스님(632-682), <금강반야경찬술>
규기 스님은 현장삼장을 도와 역경사업에 힘썼다. <금강반야경찬술>은 나집이 번역한 <금강경본>에 대한 주석서이다. <금강반야경찬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문의 인연생기(因緣生起)를 드러내고, 둘째는 언제 누가 번역했는가를 설명하며, 셋째는 경문의 본문을 판별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길장(吉藏) 스님, <금강반야경소>
<금강반야경소>는 무착의 18주, 천천의 27단의, 소명태자의 32분과 등 다른 분과설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나름대로 분과를 정립하고, 주석을 달아 전체를 10종으로 분별한 특징을 지닌다.

명나라 종록(宗勒)과 여기(如記) 스님, <금강반야바라밀경주해>
<금강반야바라밀경주해>는 전체의 성격으로 보면 황제의 명을 받아 선사의 주지 종록과 강사의 주지 여기의 두 스님이 연구를 따라 간단명료하게 주석을 붙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주석적이지도 않고 소위 선문답적이지도 않아 누구나 비교적 쉽게 읽어볼 수 있는 수준으로 엮여져 있다.

또한 내용으로는 구마라습 번역본을 텍스트로 삼았으나, 후에 소명태자가 분과한 형식을 배제했다. 그러면서도 이전의 이주분과의 형식은 철저히 답습하고 있다.

원호 스님, <금강삼매경론>
원호 스님이 686년(신라 신문왕 6)에 북량(北凉) 때 번역된 <금강삼매경>에 주석을 붙인 책이다. 원호 스님이 주석서를 내기 이전에는 이 경전에 대한 논급이 없었다.

<송고승전(宋高僧傳) 제4권 <원호전>에는 논을 저술하게 된 연기(緣起)를 밝히고 있다. 원호 스님은 소(疏)라고 해 <삼국유사>에도 <삼매경소>로 돼 있으나, 당나라의 변경 삼장들이 소를 논(論)이라고 불렀고, 중국·한국·일본인들이 찬술한 불교서적 중에서 논이라고 이름 붙여진 유일한 책이다.

책에는 안동 봉정사 대웅전,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등 국보 4건과 대불정여래입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영천 은해사 청동북 및 북걸이, 칠곡 송림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성주 선석사영산회괘불탱, 경주 기림사 비로자나삼불회도 등 국보 23건의 유형문화재가 수록됐다.

조동섭 기자

윤희조·이자랑·김양순씨 선정

제7회 불교소장학자 연구지원사업



윤희조

이자랑

김양순

한국 불교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소장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불교학연구지원사업(이사장 법상)가 '제7회 불교소장학자 연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박사는 문부문에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 대학 전임강사를, 번역부문에 이자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김양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를 선정했다.

윤희조 전임강사는 '불교에서 실재와 언어적 표현의 문제'를 주제로 초기불교부터 초기중관까지의 사상과 이제를 다뤘다. 그는 주제론에서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언어를 활용하는 불교 언어관의 특성과 발전과정을 검토했다.

심사위원단은 "초기불교에서부터 상좌부, 유부, 중론의 언어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불교적 언어관의 의미와 시대별 특성, 차이 등을 밝힌 훌륭한 연구"라고 평가했다. 또 심사위원단은 "인도 초·중기 불교문헌을 통해 언어와 실재의 상관관계라는 철학적인 문제를 거시적 사상사적 관점에서 탐색했다는 점이 돋보인다"며 "그간 일본과 서구 등 세계학계의 연구성과를 상당부분 충실하게 반영해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자신의 논변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자랑 전임연구원은 동경대 시모다 마사히로 교수의 대저인 <열반경의 연구>를 번역했다. 심사위원단은 "이자랑 연구원의 '열반경의 연구-대승경전의 연구방법시론'은 시모다의 저서가 갖는 대승불교연구의 학술적 가치와 연결 될 수 있다"며 "시모다 교수의 저서는 대승불전 연구의 방법론과 그 구체적인 연구사태의 모범을 제시한 책으로 우리말로 번역됐을 경우 국내학

계에 미칠 영향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는 통일신라 초기의 유식학 문헌인 <무량수경연의술문찬>을 번역했다.

심사위원단은 "이 문헌은 한국 및 동아시아 유식학 사상사의 흐름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문헌"이라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한국 불교전서역주사업의 역주 대상 도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조 전임강사는 서울대에서 철학과 서양 철학을 전공했으며,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 불교학 석·박사를 졸업했다. 윤 전임강사는 이번 논문 외에도 '산나(samma)의 양기적 의미' '초기 경전에 나타난 망상(Papañca)에 대한 일고찰' '중론에서의 언어의 문제'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동국대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한 이자랑 전임연구원은 도쿄대에서 인도철학·불교학 석·박사를 졸업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은 '율장에 근거한 조계종단장계 제도의 개선 방향' '팔리어에 나타난 수행자의 생활상' 등이 있으며 역술한 저서로는 <인도불교의 변천> <나를 일깨우는 계율이야기>가 있다.

한국외대에서 영어학과를 전공한 김양순 박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철학을 석·박사 졸업했으며 '무량수경연의술문찬(無量壽經連義術文贊)의 사십팔원(四十八願)'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불교학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뜻있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중심이 돼 2006년 설립된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이번 선정된 연구자들에게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에 500만원, 불교관련 번역 지원에 1인당 1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냐은 기자

'불교학과 상담심리' 세미나 중앙승가대학원 21일 본관 대강당

중앙승가대 대학원은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제3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학과 상담심리'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초기불교와 상담심리(미산 스님) △만

다라와 심리치료(종석 스님) △사회복지와 상담심리(보각 스님) △유식 30송과 심리치료:트랜스퍼널 심리치료적 접근(서광 스님) △명상심리치료(인경 스님)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냐은 기자

국보 4건·보물 23건 정보 수록 문화재청 '2009 국보·보물 지정보고서' 발간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2009년 지정된 국보·보물의 지정내용을 한 데 엮어 <2009 국보·보물 지정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보·보물 지정에 관한 내용은 그간 문화재청 홈페이지나 문화재연

감을 통해 소개돼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부사건 등의 자료가 지정 문화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각 소장기관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번에 책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이냐은 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해도사

주지 정비룡

남양 성인사 태하 삼도사
신도회장 도영국 외 신도회장 김도근 외

신도일동

■ 경북 울릉읍 동동 584-6 TEL 054)791-2471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장엄합시다

"꽃이되어요" 운동은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네 가지 행동지침인 '보시'와 '애어'와 '이행'과 '동사'라는 사법법(四攝法)을 구체적인 실천수행 덕목으로 합니다.

우리 조계사 사부대중은 조계사 도심교교 100년을 맞이하여 불교와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꽃피우고자 "꽃이되어요" 생활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 우리는 행복을 다룬이와 나눔으로써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布施]
-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하겠습니다. [愛語]
-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 이롭게함으로써 자비의 씨앗을 뿌려나가겠습니다. [利行]
- 우리는 이웃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同事]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사부대중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Tel 02-732-2183 Fax 02-720-1391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